

“올여름 휴가는 보령에서 함께 즐겨요”

해수욕장·자연휴양림 개장…보령머드축제·보령해양머드박람회 등 행사 풍성



무창포해수욕장



성주산자연휴양림

여름 하면 떠오르는 대표 휴양도시인 충남 보령시가 올해도 피서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휴가를 위해 해수욕장과 자연휴양림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국민관광지인 대천해수욕장은 7월 2일 개장해 8월 21일까지,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무창포해수욕장은 7월 9일 개장해 8월 15일까지 운영한다.

보령해저터널 개통 이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원산도 해수욕장과 오봉산 해수욕장은 7월 9일에 개장해 8월 21일까지 44일간 운영한다. 올해는 7월 16일부터 한 달간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제25회 보령머드축제와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열린다.

서해안 최대 휴양지 '대천해수욕장'

동양에서 유일한 조개껍데기 백사장으로 유명한 대천해수욕장은 한 해 1천만 명이상이 찾는 서해안 최대 휴양지다. 백사장은 길이가 3.5km에 달하고 경사가 완만해 해변 산책에도 제격이다.

호텔, 펜션 등 숙박시설과 카페, 음식점, 편의점 등이 즐비하고 공용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다. 또 스카이바이크와 카트 체험장, 그리고 바다 위를 가르며 창공에서 즐거운 비명을 쏘아내는 썰매 등 익사이팅한 체험시설이 있다.

보령시는 인파가 많아지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물놀이 안전요원을 항시 배치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신비의 바닷길이 펼쳐지는 '무창포해수욕장'

1928년 서해안 처음으로 개장한 무창포해수욕장은 조수간만의 차로 석대도까지 1.5km에 이르는 바닷길이 S자형으로 열리는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하다.

올해는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백중사리 기간으로 신비의 바닷길이 가장 넓게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무창포타워를 비롯한 낙조 5경이 있을 정도로 해넘이가 장관인 해변에는 바닷바람이 솔바람으로 변하는 울창한 송림 덕에 해수욕과 산림욕이 동시에 가능하다.

특히 시가 지난해 닭벼슬섬까지 연륙교를 신설하고 사질 갯벌 3만천㎡를 조성해 생태 관광 명소로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주목받고 있다.

산림욕과 물놀이를 함께…천혜의 휴양림 '성주산자연휴양림'

성주산 자연휴양림은 울창한 숲과 성주산의 맑은 물이 흐르는 화장골 계곡이 잘 어우러진 천혜의 휴양림이다.

40~50년 된 편백이 뺨뺨이 들어선 편백숲은 가족·연인과 함께 산림욕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다. 피톤치드 향이 가득한 산책로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몸과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다.

인근에는 패러글라이딩을 즐기거나 시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성주산 전망대와 목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무궁회수목원, 국가지정문화재인 성주사지, 종합예술단지인 개화예술공원도 있다. ▼



대천해수욕장